

6월 항쟁 관련인사 초청

여러분들을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17년 정도 지난 일입니다만, 6월 항쟁은 지금도 우리 가슴에 살아있습니다.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어려움과 좌절감을 느낄 때마다 6월 항쟁의 감동을 되살리며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여기오신 한분 한분을 보니 TV에서 저와 정부를 따깝게 질책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TV를 보면 저분들도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쪽에도 저쪽에도 못 끼는 처량한 신세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닥쳐보니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 다시 저를 대통령의 자리로 올려놓았습니다. 까닥하면 밀려날 뻔 했는데 다시 살아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큰 틀에서는 스스로 깨우치고 노력하려고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어느 한분이 열린 우리당은 6월 항쟁의 주체세력이 많이 들어왔고 7-8월 주도 세력은 민중연대, 민노당 자리로 들어와 꼭 지난 87년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얘기하며 기뻐했습니다. 4.19, 10.26 부마항쟁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니 결실을 맺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광주항쟁, 87년 6월 항쟁을 거쳐 바로 천지

개혁이 일어나고 국민들이 가슴을 열고 열싸안은 새로운 세상이 오는 줄 알았는데, 엇치락뒤치락하며 6월 항쟁도 물 건너가는 것은 아닌지, 과거사건으로 지나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이해찬 의원을 총리로 지명하고 보니 정말 새삼 새롭게 희망을 가집니다. ‘6월 항쟁 정신이 살아 화끈하게는 아니지만 면면히 우리사회를 바꾸어 가는구나. 그때 목숨을 바친 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라고 말하려면 제가 잘해야 하는데 역량이 부족한지 옅어지고 자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그 정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해석하기 따라 민중의 뜻을 버리지 않았는지, 배반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생각하겠지만 큰 틀에서는 스스로 깨우치고 노력하려고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셨으니 한 말씀 주시기라 기대합니다. 그 중에는 좀 꺾끄러운 소리가 있겠지만 그 말씀을 지탄 없이 해주시고 나도 백분 받아드리겠지만 굳이 변명할 것이 있으면 짧게 변명하겠습니다. 6월 항쟁의 희생을 거친 사람들을 위한 정신으로 큰 광장에 가서 화끈하게 해도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은 중간에 서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중간에 서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동시대를 사는 국민들 생각이 그래서 오늘 조출한 자리를 마련한 것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